

## 제4차 Asian YGEC를 마치고

장연수\*

지난 5월 23일(수요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사흘간(5월 21일-23일) 개최된 제 4회 아시아지역 젊은 지반공학자 국제학술대회(The 4th Asian Young Geotechnical Engineers Conference)를 마쳤습니다. 연령이 35세미만인 젊은 지반공학자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본학술대회는 1년여 동안 준비위원들이 각자의 업무에 바쁜중에도 이곳에 정성을 쏟고 대회기간 중에도 각자 맡은 역할을 성심성의껏 수행하여 대과없이 행사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회 기간동안 금번 학회를 참가한 각국의 참가자들의 소감은 여러 가지 행사가 걸림이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는 것이었으며 특히 다음번 Asian YGEC 제5회 대회를 위하여 국립 타이완대에서 observer로 참가한 Jeng교수는 이번 우리학회의 준비와 실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다음번 준비를 위하여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발표에 Keynote lecturer로 참가하였던 싱가포르대의 Fook-Hou Lee 교수는 귀국후 다음과 같은 사례편지를 보내왔습니다.

25 May 2001

Dear Professor Jang  
4YGEC

I write to congratulate and compliment you on the success of the 4th Young Geotechnical Engineers' Conference, which is due, in no small part, to your excellent organization and hospitality. The last few days of discussion

\*정회원, 동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부교수

with you, your fellow researchers from Korea as well as young engineers from all over Asia has certainly given me a new perspective on the state of geotechnical engineering in Asia, this has been a great privilege to me. I have no doubt that this conference will serve as an excellent model for future YGECs to emulate and that it will be a hard act to follow. Please convey my highest compliment to all members of your organizing committee.

I wish you and your colleagues all the best!

Yours sincerely



Fook-Hou Lee

대체로 참가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행사 준비자들에게는 의례적인 칭찬을 덧붙인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칭찬은 분명히 이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한 준비위원들과 이를 옆에서 지켜보며 성원하여 주신 김상규 ISSMGE 부회장님, 김수일 지반공학회 회장님 등 여러 원로회원님들의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학술대회 준비를 위하여 2000년 6월 19일 준비모임 이후 16회의 모임이 진행되었는데 월 1회 모임을 진행한 후 대회가 임박하여는 월 2회씩 준비모임을 개최하였습니다. 학술대회 준비를 위한 세부 구성은 총무, 논문, 행사, 재무로 분류하였으

며 준비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Chairman : Prof. Soo-Il Kim(연세대, KGS 회장)

Honorary Secretary : Dr. Myung-Whan Lee(파일테크)

Secretary : Prof. Yeon-Soo Jang(동국대)

Co-secretary : Prof. Dong-Soo Kim (한국과학기술원)

Treasurer: Mr. Young-Yoon Kim(보강기술)

Members:

총무 : Dr. Yun-Tae Kim(LG건설),  
Dr. Dug-Keun Park(국립방재연구소)

논문 : Dr. Chang-Yong Kim  
(한국건설기술연구원),

Dr. Seung-Won Lee(현대건설)

행사 : Prof. Jun-Bum Park(서울대),  
Dr. Jeong-Hwan Kim(삼성물산)  
Prof. Seok-Won Chun(서울대),  
Dr. Jun-Seong Cho(인덕대학),  
Dr. Munkyoung Chung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재정 : Dr. Seok-Won Lee  
(한국건설기술연구원)

Advisors : Prof. Sang-Kyu Kim  
(Dong-Pusan College),  
Prof. B. Balasubramaniam  
(AIT)  
Prof. T.S. Tan  
(Univ. of Singapore)  
Prof. H. Sekiguchi  
(DPRI, Kyoto Univ.)  
Prof. Soo-Sam Kim (중앙대)  
Prof. In-Mo Lee (고려대)

이 학술대회를 위한 지원은 국제지반공학회 (ISSMGE), 한국지반공학회(KGS), 대한토목학

회, 서울대학교에서 그리고 광고를 포함한 재정적 지원은 국제지반공학회(ISSMGE), 한국지반공학회(KGS), ESCO 컨설턴트, 삼성중공업에서 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물심양면의 지원을 하여준 여러 기관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최식 당일에는 김수일회장의 환영사와 김상규 국제지반공학회 부회장님, 장승필 대한토목학회 회장님의 축사가 있었으며 한국지반공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암반공학회, 현대산업개발에서 축하화환이 접수되었습니다.



사진 1. 제4차 아시아지역 젊은 지반공학자 국제 학술대회 참가자

금번학술대회는 외국인 등록자 18인, 국내 등록자 22인이었으며 참가자를 보낸 국가는 총 10개국으로 싱가포르 2인, 일본 3인, 홍콩 7인, 타이완 2인(observer 1인 포함), 중국, 시리아, 네팔, 카자흐스탄, 슬리랑카 각 1인, 한국 22인이 참가하였습니다(사진 1참조). 논문의 구성은 Keynote lecture 4편(Dr. Sungwan Hong, KICT; Prof. Fook Hou Lee, University of Singapore; Prof. Towhata, University of Tokyo; Prof. In-Mo Lee, Korea University), 각국의 지반공학회 nominee 논문 10편(한국지반공학회 논문 2편 포함), 일반참가자 논문 11편이었습니다.

금번 학술발표회는 참가자는 소규모이었으나 국

제학술발표회를 위한 여러가지 여건은 모두 갖추었다고 보여집니다. 금번 학술발표회는 6개의 Technical session과 아시아지역에서의 지반공학적인 문제(Geotechnical problems in Asia)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첫 날 저녁에는 추계예술대학의 학생들이 가야금, 해금, 단소, 대금 사중주와 춘향가, 아리랑 등을 연주하여 한국의 고전음악을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튿날 저녁에는 서울의 남산과 인사동을 보여주었고 3일째 저녁에는 경품과 그림알아맞추기, OX퀴즈 등으로 참가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즐겁게 하여 주었습니다. 첫날 추계 예술대학생들의 고운 한복을 본 싱가포르의 Lee 교수는 한복의 색깔과 선이 곱고 인상적이라며 고국의 부인에게 사주고 싶다고 가격을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첫날 공연을 포함한 Welcome party의 사회를 본 건설기술연구원의 정 문경박사와 마지막날 Farewell banquet에서 오락 사회를 본 서울대 박준범교수에게는 전공분야 이외의 숨은 끼를 펼쳐보이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

다. 이번 대회와 이전 우리들이 참가하는 국제대회와 다른점이 있다면 국외참가자들에게 ride 서비스를 제공한 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최근 3월에 개항한데다가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이 공항으로부터 직접오는 버스가 없었던 관계로 참가자들이 들어오는 날 오후 2회, 출발하는 날 1회의 ride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e-mail을 참가자들에게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대회가 인접하여 참가자들이 19일(대회 이틀전), 20일, 21일, 22일까지 분산되어 이들에 대한 ride를 수행하는 데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금번 학술발표 준비 중 이전과 다른점이 있다면 준비를 위하여 internet과 e-mail이 많이 활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참가자들과의 연락은 모두 e-mail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은 물론이고 매회 준비모임 후 회의 결과와 연락사항, 공람할 자료 등을

e-mail을 통하여 전송하였습니다. 외국인 참가자들과 대화한 결과 학회홈페이지의 YGEC 영문란을 통하여 학술대회 관련정보를 얻은 사람들이 많아 이제 세계가 한울타리 안에 있고 정보화 사회로 성큼 다가섬을 느끼게 하여 주었습니다.

학술대회를 치르고 나서 아쉬운점도 있었습니다. 첫째는 학술대회의 참석연령이 35세라는 제약이 있었기 때문인지 국내에서의 참가자가 학술발표를 위한 준비위원들을 제외하면 10명 정도이었습니다. 앞으로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치르는 국제학술행사도 학회회원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금번대회의 조직을 총무, 논문, 행사, 재정으로 분류하여 하드웨어 측면의 준비작업은 원활하였던 걸로 보여지나 실제 당일날 행사진행 즉 소프트웨어에 있어 개최식과 첫 번 강연에서 서투른 부분이 감지되었습니다. 즉 개최식이전에 축사와 환영사를 하여주시길 VIP들에 대해서는 사회가 행사를 어떻게 진행시킬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려드려 진행상황에 대한 사회자와 VIP 상호간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연단에 VIP입장에서 서보아 연단이 발표자의 체형에 적절하게 놓여 있는지를 사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금번 학술대회의 경우 과거에 많이 사용하던 슬라이드 프로젝터는 퇴조하고 Power point에 beam projector를 사용하거나 OHP를 사용하는 두가지로 발표수단이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금번에 power point 사용자들의 논문 diskette과 슬라이드프로젝터 사용자의 슬라이드 트레이 이용을 위한 사전 점검을 위하여 사무국내에 슬라이드룸을 운영하였지만 여기에서 걸리지 않은 발표 논문은 실제 발표에 있어 예측치 못한 사고를 낼 가능성이 상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회 기간동안 중 적어도 첫날 아침만은 일찍 대회장에 행사진행요원들이 나타나 beam 프로젝터의 전원연결과 warming up 과정을 점검하고 당일 발표할 논문들

(적어도 오전세션)에 대해서는 compatibility를 사전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제행사준비를 위하여 행사진행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따로 역할 분담을 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개선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한 준비위원들의 정성은 매우 컸다고 보여집니다. Welcome reception이나 Farewell Banquet 등 공식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젊은 준비위원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참가자들을 근처 Pub으

로 인도하여 학술발표회 참가자들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공식행사보다도 이러한 모임에서 외국인 참가자들이 더 열광적이었다는 후일담을 들을 때 한국인의 친절에 대한 인상을 깊이 심어주고 한국지반공학회의 위상을 미력하나마 더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이 학술발표회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고 마음으로도 성원하여 주신 준비위원들과 학회회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